

# 코로나에 중단된 장애인 일자리사업 '생계 막막'

### 일감 끊겨 광주·전남 직업재활시설 49곳 중 27곳 휴관 절반 넘는 640명 일자리 잃어...훈련생은 급여도 못받아 발달장애인 보호·관리 허술...사회적 안전망 마련 시급

'코로나19'로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장애인들의 활동 공간인 '직업재활시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주문받은 일감이 폭 줄고 상황인데다 장애인들도 확산을 우려해 문 닫는 날이 잦으면서 수입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형편이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9곳(광주 27곳·전남 22곳) 중, 27곳(광주 11곳, 전남 16곳)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문을 닫은 상태이다.

광주·전남 49개 장애인 직업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만 1262명.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0명이 이달 초부터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코로나19 여파로 일반인까지 구직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급여의 70%를 보장받는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훈련생 신분으로 일하는 장애인들은 시설 중단이 되도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어 끼니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출 지원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단순 조립인 임가공, 제과제빵, 불펜 조립, 신문 접기, 빨래 등과 같은 단순 작업이 대부분이다.

정성주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소장은 "훈련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무급 휴직 상태에 있는 훈련장애인들을 위한 우선적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생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재활시설을 찾지 않으면서 자칫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업재활시설은 일하는 장애인의 80% 가량이 발달장애인들로, 이들의 직업훈련 외에도 장기간 돌봐주는 보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출근을 정지시켰지만 계약처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거래처들이 코로나로 인해 거래량을 줄이는 상황이지만 직원만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해 주문량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일부 장애인들을 출근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최근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퇴움재활센터'에서 장애인들과 직원들이 빵을 만들고 있다. <북구청 제공>

광주시 북구 매곡동 퇴움직업재활센터 안병규 대표는 "직원 7명과 장애인 36명이 주문을 받아 빵을 만들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장애인 출근을 중단시키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빵을 매일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일반 직원 7명으로는 맞출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5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씨튼직업재활센터도 상황은 비슷하다. 씨튼직업재활센터 측은 "3월 한달간에만 운영비 관리비를 제외한 손실금이 약 1억원에 달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수단' 설치

### 사이버 유통망 집중 단속

광주·전남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단'을 설치,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박성주 2부장을 수사·사단장으로 수사·국제공조·디지털포렌식·피해자보호 분야에 대해 46명의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한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이영호 1부장이 수사·사단장을 맡아 33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을 운영, 단속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애초 6월까지 진행기로 했던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에 대

한 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 법무부는 앞서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범죄 수익도 기소 전 몰수 보존 신청을 하고 국제청에 통보한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17건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은 14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음란채팅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뒤 협박,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의 경우 광주 8건, 전남 23건을 진행 중이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 검찰, 경선 예비후보 압수수색 잇따라

민주당 경선과 관련, 검찰의 예비후보 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 간 치열한 선거구의 경우 불법 법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운영역 예비후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시선관위와 최영호 예비후보측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최영호 예비후보를 비방하

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잡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 등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최 후보 측도 신천지와 관련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항상 기억하자 절대 잊지 말자"

### 역대 광주인권상 수상자 5명 5·18 40주년 기념 메시지 보내

역대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제40주년 5·18민중항쟁'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

26일 5·18기념재단과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역대 광주인권상 수상자 5명이 40주년을 맞는 5·18에 대해 기념메시지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조안나 카리노'는 "우리의 영웅과 순교자들을 기리는 것은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속 살아있게 한다"며 "항상 기억하자, 절대 잊지 말자!"고 호소했다.

2018년 특별상 수상자 '남다나 마나통가'는 "(5·18민중항쟁) 봉기의 정신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광주인권상 특별상 수상자 '숨바스 슌폰'의 아내 '수이 명'은 "내 남편 숨바스 슌폰도 라오스에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비록 숨바스 슌폰이 2012년 실종됐지만, 나는 그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가 한 일 (...) 라오스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10년 수상자 '수실 파쿠렐'과 2001년 수상자 '바실 페르난도'도 5·18이 아시아 민주화를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가수 휘성 마약류 투약 의혹 수사

○··경찰이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의 마약류 투약을 의심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

○··2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마약류를 구매할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경찰은 "아직 당사자를 상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라며 휘성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휘성은 지난 2013년 군 복무 당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병역 치료 목적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결과에 귀추가 주목. /연합뉴스

## 보호관찰기간중 중고 사이트 판매 상습 사기 청소년 "형사처벌보다 훈육" 판사의 고민, 좋은 결과 이어질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다만, 만 17세 청소년으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굳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402호 법정에서 A(18)군에 대한 판결에 앞서 '이 청소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했음을 털어냈다.

A군은 지난해 3월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접속, '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수습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범행 횟수만 50회나 되고 피해자도 50명, 피해액도 1300만원에 이른다. 이미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 소년보호처분도 여러 차례 받았다. 보호관찰은 실형 대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관리를 받게 하는 제도다. 죄질이 무겁다는 얘기다. 김 판사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 이유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감안, A군을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송치하는 대신, 성인과 마

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형사처벌을 내리기보다 소년 특성을 고려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했다. 소년부 사건은 전과(前科)가 남지 않는다. A군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첫 단추를 잘못 꿴었다. 인생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첨단지점 576-4150